

김장열의 SEE-IT Note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트럼프 코로나 확진, 시기가 절묘했다. 혹 불행 중 다행?!
일수도



10월 2일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나왔다. 느닷없어...보이겠지만 실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마스크 안 쓰고 수많은 접촉을 하고 코로나를 우습게 알고 돌아다녔으니... 다만, 시기가 절묘했다.... 첫 TV토론 직후라는 점에서. 필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행 중 (진행 중) 다행의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고 본다. 첫 TV토론이 불리한 (여론조사로는 패배) 결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지지세력 결집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동정표 기대 효과?), 부양책 협상에서도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부양책 협상으로 주식시장 하방압력을 방어)될 수도 있다.

단, 중요한 전제가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 국민의 선택이 지난번 대선처럼 위주자 (爲株者)라는 가정이다. 위험 컨트롤도 못하는/안하는 사람인 것을 무시한다면. 그렇다면, 이번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래는 김장열의 '요것만' (10/5)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이다. <위주자 (爲株者)만 있으면 爲政者, 爲正者 없어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미국시장이 있지 않은가? YES!>

둘째, 트럼프 이외 또다른 확진자가 중요한 백악관/공화당 의원등에서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코로나를 극복한 트럼프라는 전략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전제는 14일 격리 기간 전후 트럼프가 빠르게 회복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선거전략 실행 가능 기간이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10월 중순이후 대선 경쟁은 다시 전개될 수 있다. 어떤 느닷없는 사건과 그에 따른 Impact는 물리적 선거 운동의 길고 짧은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측면에서 아직 미 대선까지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이번 트럼프 코로나 확진 직후 주식시장 반응 (다우 선방/나스닥 큰 폭 하락)으로 이미 잘 알고있을 법한 바이든 당선시 주식 시장 반응 시나리오를 미리 보았을 뿐이다.

대선 불확실성 (바이든 승리 가능성 고조 등)으로 10월 2일 미국 주식시장은 직전 이틀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이며 추석 연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아래는 '별 일 많았던'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뉴스 모음이다.

<미국 증시>

(10/2) 나스닥 2% 급락...다우-S&P 낙폭 1% 미만 '선방'

다우 -0.48%

S&P500 -0.96%

나스닥 -2.86%

트럼프의 확진 판정이 부양안 협상의 역동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에도 주목.

9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66.1만명, 시장 예상치 80만명 하회.

유가 이틀 연속 4%대 급락세. 미국 WTI 11월 인도분은 4.3% 하락한 배럴당 37.05달러로

(10/2, 한국 오후) 트럼프 확진, 다우지수 선물 '500포인트' 급락

(10/1) 美 부양책 협상 주시하며 상승

다우 +0.13%

S&P500 +0.53%

나스닥 +1.42%

9월 제조업 PMI 55.4 (vs 8월 56.0), 5개월 만에 하락세.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는 83.7만건, 전주 대비 3.6만건 감소, 시장 예상치 85만건.

유럽의 코로나19에 따른 섣다운 우려와 OPEC의 증산 소식으로 미국 WTI 11월 인도분 선물 3.7% 하락한 배럴당 38.72달러로.

(9/30) 추가 부양안 타결 '임박' 기대

다우 +1.20%

S&P500 +0.82%

나스닥 +0.74%

므누신 재무장관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영역에서 진척을 봤다"며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하며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강조.

9월 민간고용 (ADP)은 74만9000개 증가 (vs 시장 예상치 60만). 8월 잠정주택 판매+8.8% 증가.

<미국 대선 TV토론>

(10/1) 첫 토론 뒤 미 CNBC 여론조사 "트럼프 41%-바이든 54%": 77%, 토론이 미 국민임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해---변심은 2% 불과

(9/30 오후) Asia마감]막말 난무 美대선 토론에 증시도 '혼란'

(9/30 오후) 트럼프-바이든 첫 TV토론서 대충돌...이전투구 치닫는 선거전

<기업/섹터>

마이크론

10/2 -2.86%

10/1 +2.04%

9/30 -7.4%

: 29일 장마감후 분기 실적발표에서 다음 분기 (9~11월) 가이던스 기대치 하회

(9/30) 아마존 DRAM 주문증가로 재고 Backlog 완화 예상

: 2.1B GB (Exabyte)/전세계 DRAM 수요의 6%에 해당, DRAM 가격 4분기 8%, 1분기 하락 멈춤, 2분기 +3% 상승, 3분기 +9% 상승세로 반등 예상.

(10/2) MS는 게임회사 9조에 인수하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게임 진출

: 지난달 유명 비디오게임 '덤', '엘더스크롤', '폴아웃' 등을 보유한 '제니맥스 미디어'를 75억달러에 인수함. 이로 MS 산하의 게임 스튜디오는 15곳에서 23곳으로 증가. 아마존은 루나를 월 5.99달러의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루나+' 애플리케이션에서 50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

(10/1) 테슬라, 중국서 전기차 대폭 인하

: 468km의 표준 주행거리 모델3, 8% 인하. 668km 주행거리 모델3, 10% 인하.

한국이나 일본산 배터리가 아닌 중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 테슬라주가 10/1 (+4.7%), 9/30 (+2.4%)로 9/22 배터리 데이 이후 하락한 주가가 이전으로 회복.

(10/1) 니콜라 주가 17% 폭등 (9/30 +14%대 급등에 이어) 마감..."수소충전소 건설 박차"

: 구체적 생산계획을 밝힌 덕분. 또, 연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1곳과 제휴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

(9/30) 비철금속, 하반기 원자재 시장 회복 이끈다

: 산업재 성격을 띄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중국발 수요 증가 기대감

*기타

(10/1) "아직 못 고쳤다" 도쿄 증시 하루 종일 거래 정지 '사상 초유' (Asia마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 구분 |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 투자등급 |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 투자의견 비율 | 비고 |
|-----------------|----------------------------------|--------------------|-------------------|------------|--|
| Sector (업종) | 시가총액 대비 | Overweight(비중확대) | | | |
| | 업종 비중 기준 | Neutral (중립) | | | |
| | 투자등급 3 단계 | Underweight (비중축소) | | | |
| Company (기업) | 투자등급 4 단계 | Buy (매수) | +15% 이상 | 52.4% |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 등급별 비중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
| | | Hold (보유) | -15% ~ +15% | 1.7% | |
| | | Sell (매도) | -15% 이하 기대 | 0.0% | |
| | | Not Rated(투자의견없음) | 등급보류 | 45.8% | |
| | | 합계 | | 100.0% | |